

어린이 책꽂이

▲내가 만난 꿈의 지도=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유럽을 8년 동안이나 떠돌며 보내야 했던 자자 유리 슬라비치의 유년시절 자화상이다. 어

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1학년 수학원정대(전2권)=초등학교 1학년 수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쳐 주는 책으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만화를 통해 알기 쉽

게 풀어냈다. 주인공 그린몬 삼총사를 은 총 51개 수학과의 관문을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수학의 원리와 환경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다.

〈어린들이·각 8천원〉

▲알고 싶어요 공룡=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돌아

가 공룡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편지 형식의 책이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디플로도쿠스, 이빨이 자꾸 빠지는 티라노사우루스, 여성이 모여 등지를 트는 미아사우라 등 다양한 공룡들을 만날 수 있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도서관 도깨비=책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거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다.

책은 유럽의 역사와 그에 대한 이해를 돋우는 책이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생각을 나누는 동안 서로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거인과 아이들을 가까운 사이가 된다.

〈국민서관·9천원〉

▲정겨운 풍속화는 무엇을 말해줄까=미술평론가인 저자 이주현씨의 어린 이를 위한 주제별 그림읽기 시리즈. 시대의 표정이 담긴,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인 풍속화에 대한 소개와 미술사적 의미 등을 설명해 있다.

〈다섯수레·1만2천원〉

다산은 어떻게 절대 고독을 이겨 냈을까

다산 1·2 한승원 지음

“한 편의 소설은 작가의 인생 전부입니다. 오롯이 다산에만 힘을 쓸고 싶어 13년 전 이곳 해산토굴에 자리를 잡았죠. 정약용이 오랜 유배생활 속에서 간히 살았지만 그 간한 삶을 저술 활동으로 풀어냈듯 저 역시 토굴 속 나를 가둔 뒤

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년)은 수원 학성 축조에 거증기를 사용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다. 특히 ‘복민심서’ ‘경세유표’를 비롯해 18년간 유배생활 동안 남긴 저서만도 500여 권에 이른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기만 한다.

유배시절 다산의 마음속에서 1801년 신유박해 때의 일들은 어떻게 남았을까. 신양인으로서 순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형인 정약종은 ‘배교’(背教)를 택했던 다산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모든 의문에 다산은 침묵했지만 소설가 한승원이 다산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 역사소설 ‘다산 1, 2권’으로 살려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물·사례 중심 복잡한 유럽사 맥짚기

유럽의 역사 만프레드 마이 지음

복잡한 유럽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다.

독일청소년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된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세계사’ 등을 집필한 만프레드 마이가 쓴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유럽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특징적인 인물과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사의 맥을 짚어낸 책이다.

저자는 ‘유럽의 탄생과 성장’, ‘근대의 수레바퀴가 돌다’, ‘뱅창과 모순의 시대’, ‘전쟁과 화합 그리고 미래’ 등 4부문으로 나뉘 모두 49가지 키워드로 유럽 역사를 소개했다.

책은 유럽 역사의 모태인 그리스부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쳐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 유럽의 모습까지 간결하게 설명했다.

책 말미에는 유럽 36개국에 대한 짧막한 소개를 실려있으며 풍부한 사진자료들이 이해를 돋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 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흔일에 친척과

을 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과반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조의선사를 다른 ‘조의’(2003), 다산의 형자 ‘자산애보’를 남긴 정약전을 다룬 ‘흑산도’(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주사’(2007)까지 정약용의 주변인물